

김현철, 13년만에 돌아온 '시티팝 장인'

정규 10집 앨범 '똥' 무려 17곡 발표 "데뷔 30년"

CD는 물론 LP까지 "음원시대 나름대로 고집" 소신

'시티팝 장인'으로 손꼽히는 가수 김현철이 13년 만에 정규 10집 앨범 '똥'으로 돌아왔다. 특히 무려 17곡을 발표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앨범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김현철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CKI 스테이지에서 정규 10집 '똥' 발매 기념 음감회를 개최하고 신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현철은 지난 5월 발표한 '10th - Preview (프리뷰)'를 통해 정규 10집을 예고한 이후, 지난 17일 정규 10집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발매한 정규 9집 '토크 어바웃 러브'(Talk about Love) 이후 13년 만이다. 이날 김현철은 "데뷔 30년에 10집을 발매해 감개무량하

다"고 마음을 열었다.

오랜 공백기 끝에 돌아온 이유에는 후배 가수 조지의 힘이 컸다고 김현철은 "제가 아마 조지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친구가 단초가 되어서 앨범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제가 놓고 쉬고 있을 때 그 친구가 30년이 된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싶다고 왔더라. 그 리메이크한 걸 들었더니 너무 훌륭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지만 조지라는 친구 덕분이다. 오히려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주는 자극은 누구한테 말도 못한다"고 말했다.

'똥'은 가수와 프로듀서 김현철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앨범으로 더블 타이틀곡

'위 캔 플라이 하이'(We Can Fly High) '당신을 사랑합니다 (feat. 박원)'을 포함한 12개 트랙이 담겼다. 더불어 마담무 휘인, 화사, 조지, 박원, 백지영, 박정현, 정인, 황소윤(새소년) 등이 참여했다.

그는 '위 캔 플라이 하이'에 대해 "현실과는 다른 이상을 꿈꿔야 한다. 누구나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이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누구나 달려가야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제 고백과도 같은 노래"라며 "제 음악을 좋아해주는 분들께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노래"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드림 솔로가 잘 없는데, 제가 감히 타이틀에 넣어봤다. 스무살 기점으로 점점 자기가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 가는 과정 같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또 작은 존재라는 걸 알겠지만 지금도 그 과정이다"라고 했다.

박원과 작업한 더블 타이틀 '당신을 사랑합니다'에 대해선 "박원씨와는 인연이 오래됐다. 유재하 가요경연 때 인연을 맺었다. 제가 나중에 음반을 내면 네가

좀 불러줘야겠다고 계약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박원씨는 본인 앨범으로 바꿨는데 이번에 와서 이구두 계약을 하게 됐다"며 "어떤 배우가 나와서 시상식에서 마음 속에 있는 고백을 하는 얘기가 다. 사실 이 노래는 여태까지 제 노래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노래"라고 소개했다.

특히 오랜 공백기 끝에 CD는 물론, LP를 내는 것에 대해 김현철은 "전 사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많이 받았다.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다. 요즘에 CD로 17곡을 내는 게 미친짓 아니냐고 하더라. 그런데 제 DNA가 그런 것 같다. 음반시대에 음원시대로 왔는데 나름대로 고집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며 남다른 소신을 덧붙였다.



영화 '시동' 마동석, 저세상 러블리

영화 '시동' (감독 최정열)의 주인공 '거석이형'의 탄생에 예고하는 마동석 컴백 포스터 2종과 예고편이 공개됐다.

20일 NEW가 공개한 '시동'의 마동석 컴백 포스터 2종과 예고편은 정체불명의 단발머리 주방장 거석이형의 유쾌한 모습이 담겼다. 압도적인 포스를 풍기는 마동석의 단발머리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시동'은 정체불명 단발머리 주방장 '거석이형' (마동석)을 만난 어설플 반항아 '택일' (박정민)과 무장정 사회로 뛰어든 의욕충만 반항아 '상필' (정해인)이 진짜 세상을 맞보는 유쾌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컴백 포스터와 함께 공개된 마동석 컴백 예고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석이형'의 대채로운 매력력을 담았다.

김건모♥장지연, 결혼식 내년 1월→5월로 연기

"당초 스몰웨딩 하려했으나 주변요청에 큰 장소 섭외때문...잘 만나고 있다"



'국민가수' 김건모(51)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38)이 결혼식을 내년 1월에서 5월로 연기한다.

김건모 측은 20일 뉴스1에 "예비 신부 장지연과 결혼식을 5월로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경 이유에 대해선 "원래 내년

1월 말에 약가 50명씩 초대하는 규모로 스몰웨딩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 소식이 전해진 후 주변에서 초청을 원하는 분들이 무척 많았다"라며 "양가가 고민한 끝에 보다 큰 장소를 잡기 위해 5월로 결혼식을 연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모 측은 "지금도 두 사람은 예쁘게 잘 만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건모와 장지연은 올 5월 말 처음 만났으며 그간 아름다운 사랑을 가꾸었다 최근 상견례까지 마쳤고, 결혼 날짜는 당초 내년 1월30일로 잡은 바 있다.

김건모의 신부가 될 장지연은 김건모와 13세 차이로 현재 피아니스트 겸 작, 편곡가로 활동 중이다. 장지연은 유명 작곡가 겸 목회자인 장욱조의 딸이자, 배우 장희웅의 동생이기도 하다. 장지연은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실용음악 및 작, 편곡을 전공한 뒤 상명대 뉴미디어음악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2009년에는 가수 이미지 데뷔 50주년 타이틀곡인 '내 삶의 이유 있음'을 아버지 장욱조 목사와 함께 작곡했고, 2011년에는 앨범 '두나미스'를 발표했다. 현재는 서울의 한 대학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뉴스1

MBC '히자있는 인간들' 작가 "안재현 아닌 '이강우' 상상 못한다" 믿음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히자있는 인간들'을 집필한 안신유 작가가 배우 안재현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안신유 작가는 20일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주인공 안재현에 대해 "안재현이 연기하는 강우 캐릭터를 본다면, 그가 아닌 이강우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재현이 연기한 이강우는 외모 강박증에 걸린 캐릭터다.

안 작가는 "이강우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과연 멋지고 잘생긴 배우 중에 이 정도로 다 내려놓고 연기해주실 분이 누가 있을까? 걱정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재현은 완벽한 외모 뒤에 은근한 할렘기가 매력기에 이강우 역에 딱 맞는 배우라 생각해 출연을 제안했는데 감사하게도 이강우 역을 맡아 주셨다"며 캐스팅 비화를 밝혔다.

한편 '어쩌다 발견한 하루' 후속으로 오는 27일 오후 8시 55분 처음으로 방송된다.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겨울왕국2
2관	블랙머니
3관	신의 한 수:귀수편
4관	겨울왕국2
5관	신의 한 수:귀수편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
6관	82년생 김지영, 얼굴없는 보스
7관	겨울왕국2
8관	블랙머니
9관	겨울왕국2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좀비랜드-더블 탬
2관	겨울왕국2, 좀비랜드-더블 탬, 엔젤 해즈 폴른
3관	겨울왕국2
4관	겨울왕국2
5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신의 한 수-귀수편
	82년생 김지영
6관	겨울왕국2, 82년생 김지영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

